

NEW PRODUCT NEW TECHNOLOGY

첨단과학의 결실, 우리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 새제품 · 새기술은 첨단과학과 일상생활에서의 부단한
● 연구결과의 소산이다. 본 난은 최근에 개발 보급되고 있는
● 새제품 · 새기술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게재한다. ●

세계 최소의 고체저장장치
스노클 이동차량
미끄러지지 않는 안경
방부용 디스크
신형 클립
'양수검장' 용 어댑터
최첨단 포켓 카메라
급경사를 신나게 달린다
밤을 밝힌다
오염없는 유모차
회전식 렌즈가진 카메라
편리한 동력 톱
자전거 보트
절약형 전화
충격 멈춤장치
초박막 첨단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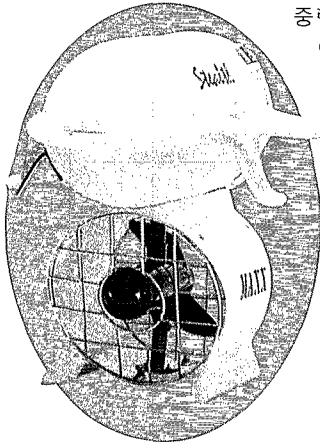


세계 최소의 고체저장장치

산디스크사와 시멘스사가 개발한 「멀티미디어 카드」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체저장장치다. 25센트 은화크기의 이 카드는 소리와 문자메시지를 저장하는 점단장치를 첨가하기 위해 미래형 셀전화(이동전화), 호출기, 그밖의 휴대용 제품에 사용된다.

스노클 이동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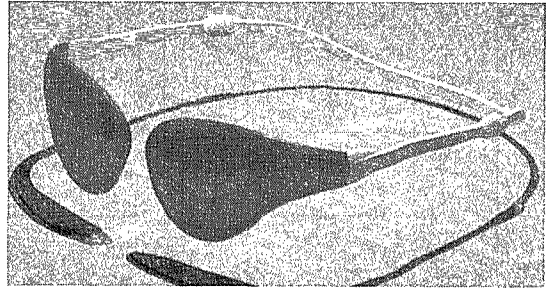
'MAXX 스틸스'는 스노클(잠수용 호흡기구)이용자들을 위한 최초의 추진차량이다. 이것은 킥보드(수영자의 팔을 떠받치는 작은 널빤지)처럼 계속 떠있게 10파운드의 플러스의 부력을 발생하거나 잠수용의 중립부력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스노클 이용자들을 1시간 이상 시속 3.6km의 속도로 추진시킬 수 있다. 값은 1천1백95~1천9백95달러
 제작소: Mode Industries, 1701 W. Broadway Blvd., Ft. Lauderdale FL 33312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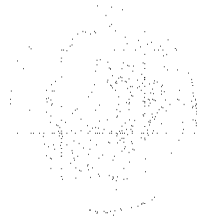
미끄러지지 않는 안경

'서벤' 사제의 브리지(안경의 렌즈사이를 잇는 부분) 없는 안경은 제자리에서 미끄러져 내려앉지 않는다. 안경테가 관자놀이에 알맞게 적응되어 귀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렌즈가 눈 앞에 떠 있게 만든다. 렌즈는 가장자리로 뻗어나가 주변을 더 잘 볼 수 있다.
 제작소: Suhvan, 555 Main St., E. Greenville PA 18041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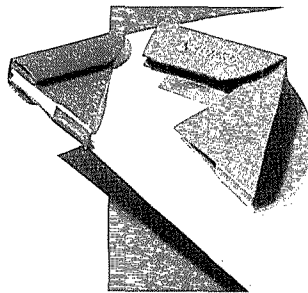


방부용 디스크

야채와 과일은 자연히 에틸렌 가스를 방출하여 공간에 축적되면 조속하게 썩어 버리는 일이 많다. 「익스트라 라이프」 디스크는 과(過)망간산으로 코팅한 제올라이트 알갱이를 내포하고 있어 이것은 화학적으로 에틸렌을 산화하여 불활성으로 만든다. 디스크의 값은 약 4달러이며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제작소: Dennis Green Ltd., 7700E. Arapahoe Rd., No 330, Englewood CO 80112 U.S.A.



신형 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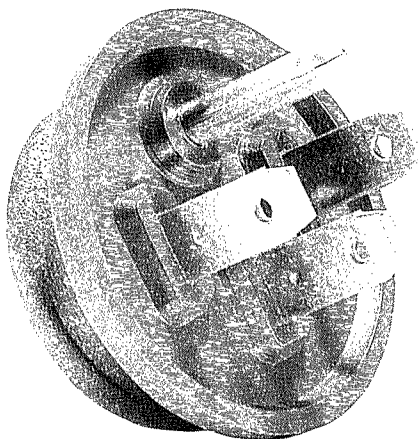
코너클립은 종래의 페이퍼 클립에 대한 새로운 대체물을 제공한다. 플라스틱제의 이 '코너클립'은 모서리를 고정시켜 서류를 묶는다. '코너클립'은 50면까지 묶을 수 있다. 값은 6개 패키지당 2달러.

제작소: OfficePro Inc., 104-70 Queens Blvd., Suite 300, Forest Hills NY 11375 U.S.A.

'양수점장' 용 어댑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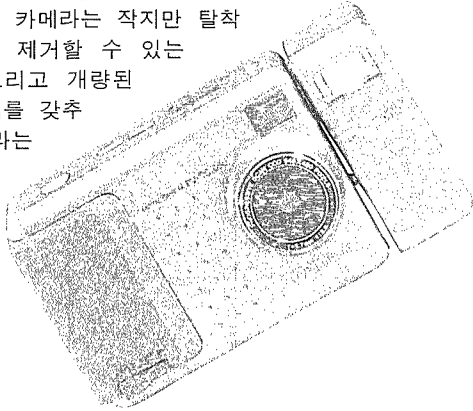
전기레인지를 가스장치와 대체할 때 전기기술자를 불러야 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가스레인지용의 220~110볼트 변환기인 '노마 파워 어댑터'를 갖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간단히 변환기 속에 가스레인지의 플러그를 꽂으면 되고 다시 기존의 전기레인지 콘센트에 꽂으면 된다. 값은 20달러.

제작소: Consumer Gas, Box 650, Carborough Ont., M1K 5E3 Can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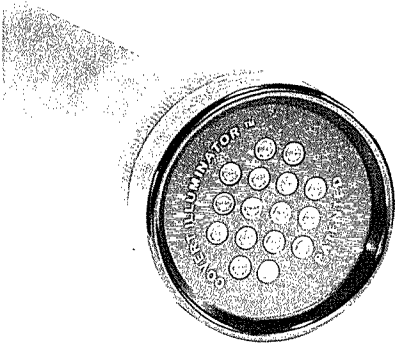
최첨단 포켓 카메라

판소닉사의 5온스(142g) 무게의 콤팩트 PV-DC1080 디지털 카메라는 작지만 탈착식 프레시장치, 제거할 수 있는 메모리 카드 그리고 개량된 컬러 LCD파인더를 갖추었다. 이 카메라는 또 카메라가대(架臺)에 부착하면 PC나 TV와 연결할 수 있다. 값은 5백49달러



밤을 밝힌다

야시(夜視)용 쌍안경은 빛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혀 빛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하나의 해결책은 야시장치로만 볼 수 있는 광원(光源)인 '일루미네이터'가 제공한다. 이 장치의 16다이오드배열은 적외선으로 100야드(91.4m) 밖의 물체를 밝힐 수 있다. 이 프레시라이트는 최장 6시간동안 작동하며 4개의 D셀 배터리로 가동된다. 값은 1백99달러.



제작소: Covert Illumination Technologies, 1801 Royal Lane, Suite 509, Dallas TX 75229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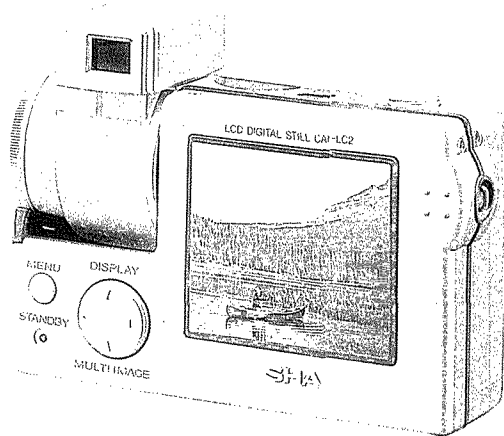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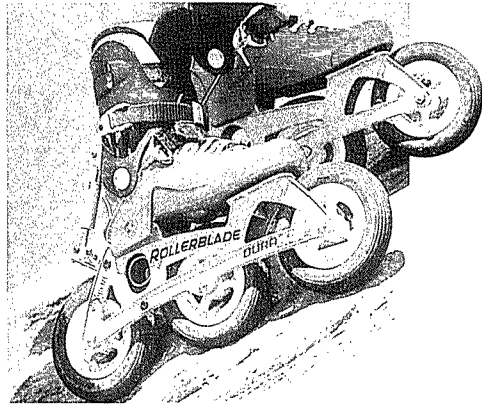
오염없는 유모차

'베이비에어' 유모차의 플라스틱 커버는 비와 오염을 막는다. 꼭대기의 배터리가동의 송풍장치와 필터장치는 안쪽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싱그럽고 여과된 공기로 내부공간에 천천히 가압한다. 값은 8백달러.

제작소: Babysphere Ltd., Unit 6C, 29 Consul Rd., Rugby, Warwickshire CV21 1PB England

급경사를 신나게 달린다

'코요테' 전지형(全地形) 직렬식 스케이트로 비포장도로를 달려 보자. 6인치(15.24cm)의 공기타이어가 충격을 흡수한다. 이에 비하면 종래의 폴리우레탄 바퀴는 매끄럽고 딱딱한 표면용으로 설계되었다. 오른쪽 스케이트에 자리한 코요테의 브레이크가 구두 앞쪽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활성화되면 드럼이 뒤의 두바퀴 사이로 내려와 속도를 늦춘다. 값은 4백99달러
제작소: Rollerblade Inc., 5101 Shady Oak Rd., Minnetonka MN 55443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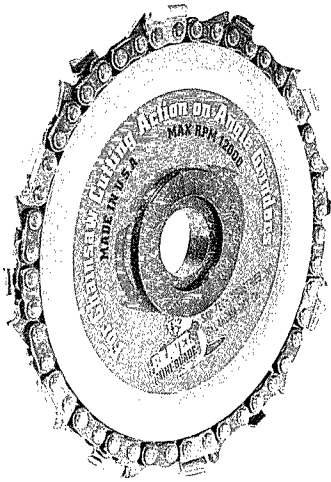
회전식 렌즈가진 카메라

샤프사의 신형 VE-LC2디지털 카메라는 대형(6cm)의 밝은 컬러 LCD 스크린을 4.3×2.4×1.3인치(11×6.1×3.3cm)밖에 안되는 작은 패키지 속에 다져넣었다. VGA카메라는 또 270도의 회전 렌즈, 광학 파인더, 무선 적외선 코넥션, TV 출력, 그리고 1백20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4MB의 메모리를 갖는다. 값은 4백99달러

편리한 동력 톱

'비버'사의 미니블레이드를 앵글 그라인더(研削機)에 부착하면 플라스틱 파이프, 자두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조각하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 지름이 4와 3/8인치인 이 스테인레스 강철날은 대부분의 4인치 및 4와 1/2인치 앵글 그라인더에 끼울 수 있다. 값은 27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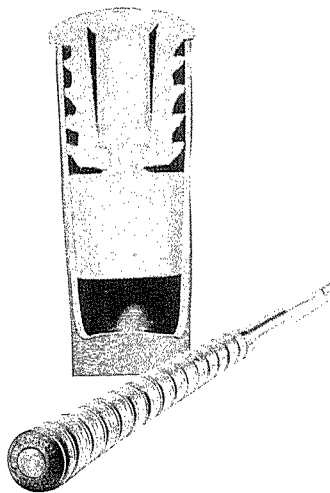
제작소: Saw-Tech Industries, 1141 S.E. Grand Blvd., Suite 122, Oklahoma City OK 73129 U.S.A.



충격 뺨춤장치

스윙을 할 때 골프클럽을 통해 전달되는 충격과 진동은 스트로크(한번 치기)에서 모든 즐거움을 앗아 갈 수 있다. 프린스사의 '산더스틱' 아이언은 두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쇼크 이레이저'는 충격력을 흡수하기 위해 플라스틱 심을 가진 탄성중합체 버트캡이다. 펠트 받침의 인공피혁과 폴리우레탄 미끄럼 방지 외부코팅을 가진 '쿠션 램프'그립은 진동을 막아 준다. 값은 한세트의 아이언당 9백달러.

제작소: Price Sports Group, One Sportsystem Plaza, Bordentown NJ 08505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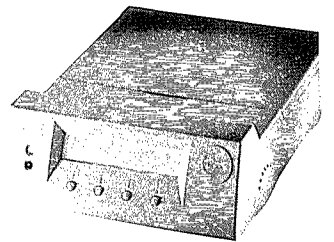


자전거 보트

'노티크라프트 에스케이프' 배는 대형의 효율적인 프로펠러를 돌리는데 종래의 외륜(外輪)대신 자전거형의 구동장치를 사용한다. 메이커는 이 장치가 노력은 덜 들이면서도 속력을 끌어 올린다고 말하고 있다. 12피트(3.6m)의 이 배의 값은 2천8백50달러지만 전환식 지붕과 배 밑의 펌프로 장비할 때는 3천5백달러. 제작소: Nauticraft Corp., 5980 Grand Haven Rd., Muskegon MI 49441 U.S.A.

절약형 전화

인터넷을 통해 다른 길로 돌아가면 장거리전화를 시내전화료로 걸 수 있다. 인노미디어사의 '인포토크'를 가지면 PC가 필요없다. '인포토크'는 전화기와 벽의 콘센트 사이에 자리한다. 간단히 전화번호를 돌린 뒤 이 시스템의 버튼을 하나 누르면 인터넷을 통해 통화할 수 있다. 값은 2백99달러.



초박막 첨단 컴퓨터

'피디온'은 무게 3.1파운드(약 1.4kg)에 0.7×11.7×8.6인치(1.8×29.7×21.8cm)의 크기를 가졌다. 그러나 12.1인치(30.7cm)의 컬러 SVGA액티브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233MHz 펜티엄 MMX프로세서, 1GB하드 드라이브, 64MB RAM, 두가지 형의 타임II PC카드 슬롯, 스피커, 마이크론 그리고 USB포트 등 최첨단 부품을 갖추고 있다. 값은 5천9백95달러.

제작소: Mitsubishi Electric America, Mobile Computing Div., 5665 Plaza Dr., Cyroress CA 90630 U.S.A.





인터넷 경품사이트 속속 개설



▲ 풋케어 사이트의 초기화면

정보를 얻으면서 상품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경품사이트가 속속 개설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기업들이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 각종 상품을 내걸고 실시하는 퀴즈행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 상품명이나 사진을 현상 공모하고 수상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공모전도 상당수에 달한다.

정보제공업체인 '발해를 꿈꾸며'에서 만든 「월간 경품정보」(www.balhae.com)는 설문조사에 응하거나 퀴즈 정답을 맞히면 푸짐한 상품을 준다. 이 사이트에선 각종 상품에 관한 정보와 스포츠 및 연예계 소식도 찾아볼 수 있다.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을 정기적으로 우송해준다. 연회비는 3만원. 세원정보통신이 제공하는 '행운클럽'(www.luckclub.co.kr)은 우편엽서 응모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다. 다른 업체의 경품행사내용을 소개하는 이 사이트는 네티즌이 전자메일로 정답을 보내면 우편엽서에 다시 적어 대신 발송해 주는 것이다.

'와보세요'(www.waboseyo.com)도 우편엽서 응모 대행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이다. 쿠폰, 경품, 이벤트, 중고 물품 판매 및 건강 상식 등을 제공한다. 현재 다채로운 상품이 걸린 이벤트행사가 진행중이다.

'감성주의 상품과 경품이벤트'(netizen.att.co.kr/idolpia)는 모든 경품관련 사이트를 연결해 놓았으며 게임시험판을 전송받을 수 있다. '경품을 그대 품에'(members.iworld.net/bonanza)는 승용차, 세탁기, 자전거, 시계, 핸드폰, 1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해 인기가 높다. '풋케어'(www.footcare.co.kr) 사이트는 무좀, 건강신발 등 발에 대한 상식과 함께 경품퀴즈를 제공한다. 퀴즈 정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구두티켓, 도서 상품권, 전화카드, 버스카드 등을 보내준다. 당첨자는 매월 말일 사이

트에 게재된다.

'보물섬'(members.iWolrd.net/jiyunkim)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쉽게 응모할 수 있는 경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각종 정보사냥대회, 경품이벤트 등도 수록했다. 또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각종 경품정보를 알려주는 네티즌에게는 1건당 50원씩의 정보제공료를 준다.

'노다지'(www.nodagi.com)는 경품행사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모아 놓은 곳이다.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 경품 행사 외에 공모전 관련 정보와도 연결해 놓았다. 또 경품정보를 수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알려주는 무료 메일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신청페이지에서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만 입력하면 받을 수 있다.

인터넷에 천문우주정보 서비스

천문우주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 천문우주정보서비스의 화면

동화상과 함께 우리 말로 설명해 주는 인터넷사이트(<http://www.apac.co.kr/x-tech>)가 등장했다. 천문대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인 에이팩인텔리전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DB사업의 일환으로 천문우주정보 구축작업을 최근 마치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천문대 연구원 9명과 대학교수 3명이 함께 만든 이 사이트는 사진 9천3백장, 그래픽 1백10장, 동화상 100초의 화려한 영상자료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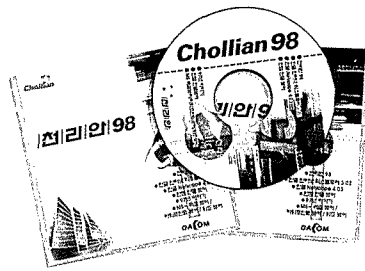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메뉴는 크게 5가지. '우주탐험관'은 우주의 역사, 별의 탄생과 진화, 블랙홀의 생성원리 등 우주론과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각국의 우주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환상체험'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 도시를 여행하는 가상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별에 얽힌 신화를 알려준다. '지구여행'에서는 지구의 역사, 생명의 근원, 남극개발현황을 찾아볼 수 있고, '테마파크'에선 천문대·천문력 소개와 미확인비행물체(UFO)논쟁을 실고 있다.

'X-tech자료실'은 천문, 지구, 해양, 환경, 우주 등 분야별로 해외 자료들을 소개한다. 이밖에 천문우주관련 동호회를 안내하고 전문가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문란도 운영하고 있다.

PC통신서 인터넷 연결 '착석'

PC통신 가입자들의 인터넷 이용이 한걸 쉬워졌다. 하이텔, 천리안,



▲ 원클릭 인터넷을 실현한 천리안98

유니텔, 나우누리 등 4대 PC통신은 PC통신과 인터넷의 경계를 허문 전용 통신프로그램(에뮬레이터)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PC통신 가입자들의 숙원인 '원클릭 인터넷'이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새로 선보인 에뮬레이터들은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인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내장, PC통신과 인터넷 사이를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 또 게시판과 대화방에 멀티미디어 및 웹기능을 접목, 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인터넷 문서처럼 꾸밀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 고유기능을 PC통신에 흡수했다.

'인터넷 PC통신'을 표방한 SK텔레콤의 넷츠고와 LG인터넷은 올해 초 인터넷 기반의 에뮬레이터를 발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데이콤은 이용자가 별도의 브라우저를 설치하지 않고 천리안과 인터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에뮬레이터 '천리안98'을 3월 초에 내놓았다. 천리안98은 천리안을 사용하다가 화면 상단의 'WWW'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인터넷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인터넷상에서는 상단의 주소란에 천리안의 메뉴명을 입력하면 PC통신으로 되돌아 올 수



▲ 이지링크를 이용한 하이텔화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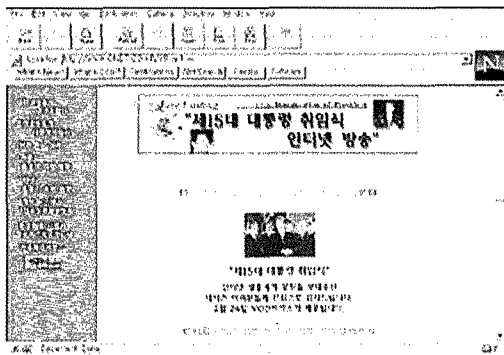
한국PC통신은 하이텔 전용 에뮬레이터 '이지링크1.2'를 3월 초부터 이용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지링크는 윈도95 환경에서 마우스클릭 한번으로 하이텔과 인터넷을 넘나들 수 있다. 근거리통신망(LAN)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다. 이지링크는 또 인터넷 신기술인 '푸시' 기능을 활용, 하이텔의 주문형 정보 서비스인 '하이캐스트'와 연동시켜 놓았다. 별도의 환경설정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삼성SDS의 유니텔은 3월 하순부터 '유니원98'을 이용자들에게 선보였다. 윈도95용으로 개발된 유니원98은 PC통신 환경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며 리얼비디오, 자바, 쇼크웨이브 등 각종 플러그인 프로그램(멀티미디어용 보조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 멀티미디어를 손쉽게 즐길 수 있다. 유니원98은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기존 기능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부분만 전송받아 성능을 스스로 보완해 주는 장점도 있다. 하이텔이 푸시기능을 주문형 정보에 적용한 반면, 유

니텔은 온라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도입한 것이 차이점이다.

나우누리는 기존의 전용 애플레이터 '웹프리3.1'의 후속제품으로 '웹프리3.2'를 3월 말 출시했다. 나우누리는 이미 3.0판에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내장했기 때문에 이번 버전은 프로그램의 안정성 보강에 중점을 두었다. '비보' '넷쇼' 등 리얼비디오기능을 추가, 동(動)영상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방송기술개발 잇달아



▲ 리얼시스템으로 김대중대통령 취임식을 생중계했던 큐넷 온라인

‘인터넷 방송국의 안방 자리를 선점하라’

인터넷방송이 TV나 라디오 등 기존 공중파방송을 대신하는 차세대 방송매체로 각광받으면서 인터넷을 통해 멀티미디어 동영상을 빠르게 전달하는 다양한 동영상처리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방송은 전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인터넷을 통해 국경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뉴스,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을 전달해 주

는 서비스. 인터넷방송은 이제까지 제한된 전송능력 때문에 실용화의 걸림돌이 많았으나 최근 차세대 동영상처리기술이 잇달아 개발됨에 따라 주문형 뉴스 서비스, 이벤트 상황 중계, 원격 강의 등에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동영상 처리기술은 미국 리얼네트웍사가 상용화한 '리얼시스템'. 음악을 CD수준의 음질로 들려주는 '리얼 오디오',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압축해 전송하는 '리얼 비디오'로 구성돼 있다. 일반 사용자들은 PC에 동

영상 재생 소프트웨어(SW)인 '리얼 플레이어'를 설치하면 인터넷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이 SW는 국내 PC통신 자료실이나 리얼네트웍사의 홈페이지(www.realaudio.com)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현재 MBC, KBS, SBS가 이 시스템으로 실시간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다.

미국 비보사가 개발한 '비보액티브'도 최근 주목받는 동영상 처리기술이다. 고품질의 영상과 스테레오 음향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고, 전화선이나 종합정보통신망(ISDN), 근거리통신망(LAN) 등의 통신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특히 이 기술을 이용하면 인터넷 방송국마다 값비싼 중앙컴퓨터(서버)용 제품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사용자들의 PC에 동영상 재생용 SW만 깔면 돼 사용이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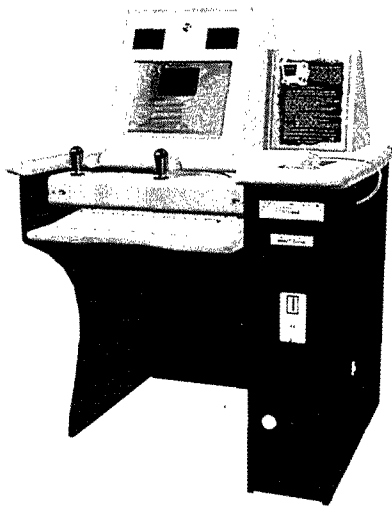
개인 사용자용 SW는 비보사의 홈페이지(www.vivo.com)에서 전송받을 수 있다. MBC가 이 기술을 이용해 뉴스방송(www.mbc.co.kr)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 SW제작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개발한 '넷쇼'(www.microsoft.com/NetShow)는 자연스런 동영상 처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MS사의 대화형 TV시스템 기술인 '타이거(코드명)'를 적용하면 풀 스크린과 풀 모션의 동영상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밖에 미국 브이엑스트림사의 '웹시어터'(www.kmti.com)는 독자적인 압축기술로 동영상 파일을 무려 100분의 1 이하로 압축, 전화선으로 빠르게 전송한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모뎀과 전화선을 통해 초당 10프레임(장면)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이 기술은 SBS의 '97년 슈퍼엘리트모델 인터넷 생중계'에 활용돼 호평을 받았다. 또 미국 VDO넷사가 개발한 'VDO라이브'(www.vdo.net)는 국내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기능이 뛰어나고 사용도 편리해 외국서 주목받고 있다.

컴퓨터 편의점 첫 선

인터넷과 PC통신, 컴퓨터게임을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컴퓨터 편의점이 첫 선을 보였다. 지오넥스는 최근 서울 강남역 부근에 컴퓨터 편의점 '지오플라자' 1호점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



▲ 지오플라자에 설치된 공중PC

했다.

35평 규모의 지오플라자에는 공중 전화처럼 동전이나 카드를 넣고 작동시키는 공중용 컴퓨터 '지오킴'이 설치돼 있다. 이 컴퓨터는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기화면을 메뉴방식으로 구성, 원하는 버튼만 누르면 통신, 게임, 채팅, 문서작성,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으로 직접 연결된다. 5백원을 주입하면 10분 사용할 수 있다.

지오플라자에는 또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 등 컴퓨터 주변기기는 물론, 각종 CD롬타이틀 등 멀티미디어 영상물과 소프트웨어, 팬시용품을 갖춰 멀티미디어 작업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14GB용량의 서버와 1초에 한글 7만2천자를 주고 받을 수 있는 T1급 회선, 인공위성을 통해 정보를 수신하는 디렉PC를 도입해 고속의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했다.

또 인터넷 카페와 같은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창업정보도 제공

함으로써 소호(SOHO)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꾸몄다.

지오넥스 관계자는 "매주 회계사와 변리사 같은 전문가를 한명씩 초청해 세무상담 등의 이벤트도 개최할 계획"이라며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555-4020.

애플, 세계 최고 속도의 노트북 출시예정



▲ 애플의 제3세대 PC인 '파워북 G3'

애플컴퓨터사가 인텔 펜티엄 II 프로세서보다 정보처리속도가 훨씬 빠른 제3세대 파워PC칩을 탑재한 노트북PC를 상반기중 내놓을 계획이어서 노트북PC시장을 둘러싼 쟁탈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애플의 새 제품인 '파워북 G3'(PowerBook G3)는 292MHz속도를 갖춘 '파워PC 750' 중앙처리장치(CPU)를 장착할 예정이다.

이 프로세서는 인텔이 4월 노트북용으로 발표할 266MHz와 300MHz급 펜티엄 II 칩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 애플측의 설명이다. 비록 데이

터 연산속도는 300MHz보다 뒤떨어지지만 칩의 설계를 고도화해 실제 처리속도가 320MHz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애플에서 나온 노트북중 가장 빠른 제품은 250MHz급 프로세서를 사용해왔다.

애플사는 제3세대를 뜻하는 G3계열 노트북의 출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애플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트북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방침이다. 이 사실은 이미 TV광고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 다른 의미는 G3계열의 노트북이 부품들을 단순화해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애플의 노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애플의 데스크톱 PC인 '파워맥 G3'처럼 G3계열의 노트북도 모두 동일한 회로판을 사용하게 된다. 이 기술은 제조공정 합리화에 필수적이다.

이번 신제품중 판매가격이 6천3백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고급형은 292MHz급 '파워PC 750'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14.1인치 액티브-매트릭스 액정표시장치(LCD) 화면과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롬 드라이브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와 함께 신제품에 사용하는 회로판에 연산속도가 조금 더딘 프로세서를 장착한 저가형(低價型) 모델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같은 디자인을 채택해 다품종 생산을 피할 계획이다.

애플은 새 노트북PC 제품으로 지난해 '파워맥 G3' 데스크톱 PC가 이뤄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하고 있다. (ST)